

대한양계협회 소식

하계 양계 강습회 성황리에 마쳐



대한 양계협회가 주최하는 연례행사의 하나인 하계양계강습회가 8월17일 서울 여성회관을 선두로 개최되었다. 지방은 전북 및 전남지역 20일 광주(농촌진흥원강당) 21일 전주(전북은행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영남지역에서는 26일 대구 농협도지부회의실에서 강습회를 가졌다. 연사에는 건국대

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강연했으며 KIST의 김춘수박사가 「새로운 사료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서,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이 「마력병과 뉴깃슬병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각각 강연했다. 특히 서울 강습회에서는 사료협회 유운수회장이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외국사료 곡물동향에 따른 우리축산업계가 취할 대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양계협회에서는 강습회를 위한교재를 책자로 만들어 배부했다.

오세정교수가 「양계업의 현황과 전망 및 그 문

해파 및 감종 감별사 시험 성료

대한양계협회는 8월 12일, 13일 양일간에 걸쳐 한미병아리 감별학원에서 감별사 해외파견 및 감종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해외파견 부문에는 13명이 응시했으나, 파선경씨 한명만이 완전 합격하였고 이수일, 김선옥 김영순씨가 산란제감별에만

합격했다. 이들 3명은 다음 시험시에 육용시험에서 육용제감별에 합격하면 완전합격의 자격을 얻게된다. 감종자격 시험 부문에는 34명이 응시하여 장영일의 32명이 합격하는 좋은 성적을 보였다.

양계업자에 무연탄공급 특별배려 하기로

대한양계협회는 무연탄의 생산부족과 연료수요 격증때문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연탄부족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여 양계가가 연탄부족으로 육추를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농수산부, 상공부등에 협조를

의뢰하였던바 양계농가에 있어서는 지방장관 책임하에 수급조절에 있어 특별배려를 하기로 했다. 양계가는 필요한양의 연탄을 사전에 지방장관과 협의하여 물량확보에 차질이없도록 할 것을 당부한다.

동두천 분회 직매장 개실

대한양계협회 동두천분회(분회장: 최진삼)는 분회설치후 본격적인 사업의 일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직매장을 개실하여 업무를 개시했다. 이번 직매장 설치에는 많은 축산관계

인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는데 분회장 최진삼씨의 말에 따르면 직매장설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직매장의 개장을 보게 되었다며 축산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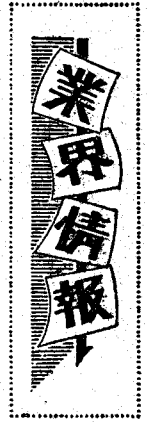
부화장 병아리 예약 쇄도

올들어 우리 부화업계는 병아리 판매 저조와 판매가격의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지난 7월말 연탄배급제실시후 연탄부족을 예상 조기육추를 하려는 양계가가 많아 부화장에 산란제 병아리 예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화장은 10월 말까지 병아리 예약이 차있다고한다. 이러한 조기육추 경향은 연탄부족 이 외에도 올들어 난가의 호전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부화장들은 종계의 부족으로 병아리 공급에 부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많은 육추 현상으로 내년도에 생산과잉을 우려하는 이도 없지는 않지만 이제까지의 초생추 출하량과 현재 초생추 출하량이 작년 동기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렇게 염려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농수산부 소식

축산법 시행 규칙 개정령 공포



농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다.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에는 종란 및 종계의 선정기준과 부화장 및 종계장의 위생관리등에 관하여 미비한 점이 허다 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양계 사업발전을 도모하고자 본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법 집행에 따라 각시도는 종계심사의 위촉과 수수료의 사정등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미 등록된 부화장에 대하여는 개정법을 통보하고 경과조치에 따른 부화장 시설기준에 알맞도록 보완하여 기일내에 재등록을 필하도록 해야 하며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에서는 심사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본법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보면 부화업자가 부화에 사용하는 종란은 도지사의 확인을 얻은 종계에서 생산된 난으로 종계 확인번호가 표시된 것이라야 하며 종계업자는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

사에게 종계 확인을 얻어야 하고 종계확인인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심사기관에 심사를 위촉해야 한다. 부화장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부화장과 계사는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 위치 지형등을 고려하여 500m 이상 격리 시설해야 하며 부화장내에는 부화장 등록필증과 부화장 검사증을 부착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며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는 이령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상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 시설기준을 보완하고 도지사에게 재등록 하여야 한다. 이상이 본법 개정령의 주요내용으로서 종전의본법 제25조, 26조, 28조를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남정근 국회의원 외 5명 미국축산업계 시찰차 도미

지난 8월 24일 남정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우유조합장 최영규씨, 농협중앙회 송규인이사, 한국양돈협회 최윤식 회장, 농수산부 사료과 송찬원씨, 미사료곡물협회 박영인씨,

일행은 미국 축산업계 시찰차 도미하여 시애틀 텍사스, 뉴올리언즈, 아이오아, 시카고 등지의 축산업계를 두루 시찰하고 오는 9월 12일에 돌아올 예정이다.

상공부, 대한양계협회에 슈퍼체인 업무에 따른 협조 요청

상공부는 지난 8월 5일 슈퍼체인 업무에 따른 협조를 대한양계협회에 요청해 왔다. 슈퍼체인은 상공부가 소비자 보호시책으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배제하여 소비자에게 공장도가격으로 물량을 구입하도록 하

기위한 조치인데 상공부에서는 닭고기과 계란의 원활한 공급을 대한양계협회가 협조하여 줄것을 바라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 공문을 접수하여 양계업자의 이익이 되는 범위에서 협조해 주기로 했다.

세계 계란 Contest에서 우승할 뻔.....

지난 7월 27일 미국 메인주 퍼츠필드에서 세계 계란 Contest가 개최된바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에 있는 신성부화장이 한국대표로 하바드 코머설에서 나온 달걀을 출품했었다. 한국은 그 계란의 신선도와 크기에 있어 타국에 월등하여 강력한 우승후보로 주목되었으나 계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선은 커녕 실격되고 말았다. 이 대회 심사위원들은 메인주립대학 가금학 교수들로 구성되었는데 우승은 메인주의 한 농부가 출품한 교잡종이 차지했다. 폴랜드는 걸모양만 훌륭한 껍데기만 출품하여 원형보존이 안된 이유로 탈락하고 말았다.



한국사료협회 사료용곡물 배합율 조정

한국사료협회는 7월이후 옥수수 가격이 계속 폭등 8월1일 현재 C&F(한국도착가격) 톤당 9월 선적분이 \$191²³까지 상승하였고 수수

도 9월선 적분이 \$167까지 상승 신곡출회시부터 도입시까지 중대한 문제점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료용 곡물 배합율을 조정사용해 줄 것을 각축산 단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사료협회는 대한양계협회, 농수산부 사료과, 각 시도 축정과, 서울우유조합, 한국양돈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74년 하반기 곡류사료의 수급계획을 볼때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할 경우 현재 확보된 물량으로는 수수의 배합율을 조정한다 하여도 10월까지 사용할 물량밖에 갖지 못한다 대다수의 양축가가 수수의 사용을 꺼려하기 때문에 옥수수만 과용하다 보면 옥수수가 9월말에 떨어져 사료의 수급과동이 앞당겨 지리라고 걱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협회는 각 축산단체를 통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료용 곡물을 종류별로 균형있게 사용함으로써 원료수급상의 차질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아울러 사료급변에 의한 스트레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수수와 수수의 배합율을 일관성있게 서서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료협회는 사료협회 회원인 각 배합사료 공장을 통해서 배합사료중 수수의 평균배합율을 7월에는 10%, 8월에는 15%, 9월에는 20%, 10월에는 25%로 점차 배합비율을 높여서 사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양돈 및 추우용 배합사료에는 수수의 배합율을 60~80%까지 서서히 증량시키고 양계용 배합사료에는 곡류사료의 30~35%까지 서서히 배합율을 조정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와같이 곡류사료의 배합율을 조정하게 되면 10월에 약 15,000톤의 옥수수 재고를 갖게되므로 신곡출회분까지 충당할 곡류사료에 대해서는 한국사료협회에서 현재의 국내 박류 가격이 저렴하므로 에너지원으로 열대 서류

인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여 일부 타피오카의 추가도입을 강구중에 있으며 계속 미국 및 기타사료곡물 수출 국가의 시세를 조사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사료 전망은 늘 불안 감이 감돌게 되므로 사료자원개발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늘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사료정책을 펴왔음을 상기할때 이러한 정책적인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국제적인 곡물 사료사정은 악화 일로를 걷고있다. 세계의 식량공급의 책임을 맡고 있는 미국이 풍작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의 기아를 충족시킬만한 곡물수요량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곡물 가격의 하락도 기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단기적인 미봉책 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양축가는 무모한 숫자의 증식을 억제하여 알맞게 기르는 것만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될 것 같다.

대가축 전문가 초청 육우·유우경영 자문계획

미국사료곡물협회한국지부는 미국의 저명한 목장경영 전문가 Leroy Young박사를 초청 8월19일부터 11월 사이에 초지 조성에서부터 번식,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자문계획을 세우고 있다. Young박사는 Texas A&M 대학 축산과 교수로 많은 연구

실적을 쌓은 바 있고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난 노련한 대가 축전문가로서 이번 3개월 체한 중에는 한국의 이 분야 현황을 살펴보고, 금후의 발전방향 및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간이 허(許)하는 한 개인목장경영자문 요청에 응하겠다고 한다.

오봉국교수 향미

서울농대 오봉국교수는 세계가금협회에 논문발표 및 이사회회에 참석차 8월 14일 미국으로 떠났다. 3주 예정으로 도미(渡美)한 오봉국교수는 세계가금협회모임이 끝난후 산업시찰 및 주요 대학연구소를 방문한후 돌아올 예정이다.

축산관계인사 산학협동 친선테니스 대회

한국사료협회 주최, 흥성사료 후원으로

우 승: 대한사료 (이 정웅, 이 동하)

준우승: 건국대학교 (황 칠성, 윤 효직)

3 등: 가축위생연구소 A팀 (이 창구, 박 근식)



한국사료협회 (회장 유운수)는 흥성사료후원으로 지난 8월 11일(일) 안양가축위생연구소 정구장에서 업체, 학계, 정부기관, 연구기관등 축산관계인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협동하는 대회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침체된 축산한국의 촉진발전을 기하는 뜻에서 축산관계 인사들 초청, 산학협동 친선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유운수 사료협회장, 이창구 안양가축위생연구소장, 정대원 흥성사료사장, 농수산부 행정관 각 연구기관 연구관들과 각 대학축산분야 교수 축산단체(대한양계협회)등 업체중진들과 출전 팀으로는 농수산부, 가축위생연구소, 축산시험장, 서울농대 건대축대, 사료협회 대한사료 천일곡산, 흥성사료 한국카아

길, 한국과학 연구소등 17개 팀으로 구성된 자체각종의 선수를 포함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우친관계로 일주일 연기되었던 이 대회는 청명한 날씨에 선수 일동의 산뜻한 유니폼으로 9시반부터 시작 「토너먼트」 형식으로 패자전까지 두어 실력 대결의 기회를 주었으며 특히 선수들의 연령차이는 청년층에서 중장년층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장년층의 왕성한 「스태미니」는 젊은층을 놀라게하는 성실을 보여주는 한편 흥성사료 B팀으로 출전하여 3차전까지 올라간 오재정씨 부부팀과 개인팀인 오봉국교수 부자팀은 많은 인기를 차지했다. 이러한 모임은 일찌기 축산업계에 흔히 않았던 것으로 이번 대회의 성과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

어 앞으로는 매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의 푸짐한 상패와상품을 획득한 수상자를 보면 우승: 대한사료(이정웅, 이동하), 준우승: 건국대학교(황칠성, 윤효직), 3등: 가축위생연구소A팀(이창구, 박근식) 4등: 가축위생연구소B팀(김동성 정운익), 5등: 흥성사료B팀(정규원 최친수), 장려상 농수산부(김권철, 한역환)인기상, 축산시험장A팀(송기덕, 김영주), 공로상, 개인혼성팀(김춘수, 한인규)이 차지했다 이 대회의 후원인 흥성사료는 대회도중 중식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6시경 경기가 끝나자 야외잔디밭에서 간이식사를 곁들인 음료수를 대접했다.

배합사료 품질개선 회의

지난 8월 27일 농수산부 회의실에서는 배합사료 품질개선을 위한 회의가 축산시험장장을 비롯하여 서울농대 한인규박사 한국사료협회측과 대한사료 외 4개 사료공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배합사료를 세분화함으로써 사료의 급여방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성분량 한도 조정으로서 농수산부는 앞으로 단미사료를 규격화 하고 산란 초기 사료에

대해서 일부사료의 조섬유 조회분의 최대 한도량을 낮추고 부로일러 전기, 후기 사료의 조단백 함량을 최소 한도량을 높일 가능성이 보인다.

첫째, 사료의 이물질 감정에대하여는 토사의 함량이 양제사료에는 1.5% 이하, 조섬유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것이다.

■ 동립사료 “동립토포크”

시판예정

동립사료에서는 「동립토포크」

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 시판할 예정이다. 배합사료 20kg 한포에 동립토포크 1포(1kg)를 섞어 먹이면 가축배설물의 악취가 없어지고, 발육 및 소화촉진을 기하며, 항병력을 길러 각종질병에대한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 동립사료에서는 현재 동립토포크를 사양시험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시험기간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무료공급도 하겠다고 한다.



중앙축산사료<주>저장 및 생산시설 대폭확장

종합축산 사료로 면모를 갖춘 중앙축산은 금년 3월 16일에 보세창고 550명을 증축 완공하여 총창고건평 828평으로 확장하였으며, 근래의 제품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1일 8시간 가동 120톤 생산규모로 생산시설 및 기기를 확장신설하고 현재 1일 80톤

이상을 증산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사료의 기호성 및 곰팡이 독소의 중대성이 선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바 당 공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Flavor Corporation of America의 국제특허품인 휘드넥타(FEEDNECTAR) 및 프로타녹스 플러스(PROTANOX PLUS)를 한국 초유로 수입 사용하여 팔목할 만한 효과를 보고있다고 한다.

주한 미국 대사관 농무관 교체

주한 미국대사관에 농무관으로 재임하던 Clancy N. Jean 씨가 8월 29일자로 대사관을 떠나고 후임에 Gordon S.Nicks씨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다.

버미칼-25

(삼진화학 주식회사)

작년 7월 1일에 새로 설립된 삼진화학주식회사(三眞化學株式會社)는 버미칼-25(원명(Higrowth))라는 신제품을 제조 판매하고있다. 이것을 소, 돼지, 닭 사료에 섞어 먹임으로써 가축의 발육촉진, 사료효율 향상 및 질병예방에 효과를 갖어온다는데 작년 9월부터 74년 2월까지 안양가축위생 연구소와 충북대학에서 사양시험을 거친바있다. 특히 닭사료에는 약 3%를 배합 급이 하므로써 병아리의 설사 및 기타 질병에 효과가 있고 병아리 발육촉진 폐사율의 감소 산란계 산란율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버미칼-25의 포장단위는 1kg짜리와 20kg짜리가 있으며 삼진화학은 일산 25톤을 생산하고있는데 판매처로는 경인지구는 「창원가축약품」(인천 5-3545)이며 서울지구판매처는 「동서가축」에서 하고 있다.

한국 화이자메카독스 현탁액 등 신제품개발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한국화이자에서는 새로운 동물약품으로 메카독스현탁액 테라마이신-100주사액 및 가스트리트르를 개발하여 곧 시판할 예정이라 한다.

메카독스현탁액(Mecadox Pig Doser)은 새로운 합성화학물(성분 Carbadox 5.25mg/ml)로서 자돈의 설사예방 치료제이다. 이 제품은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되어 일반 양돈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한다.

테라마이신-100주사액은 화이자의 대표적인 제품인 테라마이신 주사액으로 P.V.P.를 사용함으로써 테라마이신 주사액 사용시의 통증을 완전히 제거한 제품으로 주로 중대동물용으로 시판케 된다.

다음 가스트리트르(Gastreat)는 반추동물의 고창증 치료제로서 이제까지 대한신약이 일본 다이토 화이자로부터 수입

판매하던 것을 한국화이자에서 제조 공급하게 되었으며 이들 새로운 제품은 화이자 극동지역의 품질관리센터인 일본 나고야 실험실에서 품질검사 완료 후 시판할 것이라 한다. 메카독스 현탁액은 화이자에서 직접판매 하고 테라마이신-100주사액과 가스트리트르는 대한신약(주)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 이전 및 전화번호

정정 안내 ●

삼우화학(주)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삼우 화학공업주식회사는 8월 25일부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변경된 전화번호 : 63-9409
63-9285

한국고-킹(주)

한국고킹주식회사는 지난 7월 29일(월)에 사무실을 아래와같이 이전하였다.

이전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50-8
전화번호 : 63-5234

국제 가금박람회 영국에서 개최예정

—오는 12월 5일~7일 런던 올림픽아에서—



오는 12월 5일~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영국 런던 올림픽아에서 국제 가금박람회가 개최 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50개국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15개국 이상의 국가가 이 박람회를 통해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박람회에 전시될 설비는 자동화된 계란 tray, 전동, 등급표 상자의 포장, 자동화된 기계, 계란세척기, 자동화된 계육포장,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븐(Oven) 등을 전시하게 되리라 한다. 이러한 기계 및 설비의 전시는 양계산물을 생산하는데 좀더 노동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 가금박람회는 "Poultry World,"와 "Poultry Industry,"에서 후원을 받아 개최되리라 한다.

食糧난기류現狀

세계의 식량수급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그 긴박도가 풀리지 않고 불안정 상태를 빚을 것 같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2일 미국농무성이 곡물수확에 상량을 발표하는데 이어 13일에 계속 발표된 「위기적」 농산물 수급전망으로 국제농산물시황은 수입국의 구매동향에 따라서는 다시 「난기류」를 형성할지도 모른다는 정세이다. 수입국들에게 더욱 어두운 면은 미국내의 곡물류 수출 규제론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미상원 농림위의 달마티위원장은 포드대통령에게 대두등 곡물의 수출규제를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농업의 주요 부분은 곡물—사료—축산물이다. 주요 선진국을 예로볼때 곡물—사료—축산물의 생산고는 전농업생산고의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물은 곡물을 통해서 가공된 것이므로 세계 농산물 수급사정은 곡물의 수급으로 좌우된다. 미국이 파잉재고를 갖지 않는 정책

과 관련하여 수입제국이 안정재고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미국곡물에 대한 수요가 큰 것이다. 앞으로 이문제를 생각할 때는 소련 및 미국의 정책과 인도의 수확변동량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련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수확이 불안정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칸사스 영양회의 개최예정

아칸사스 영양학회의가 오는 9월 26일 27일 양일에 걸쳐 아칸사스대학에서 아칸사스 사료공업협회 후원과 아칸사스대학 축산학과 협조아래 개최될 예정이다.

9월 26일 오전에는 4~8주령 부로일러에 제한급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산란제에 대한 아미노산과 열량수준 및 반추동물에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문제가 토의될 것이다. 오후에는 동물사료에 비타민강화를 위한 성분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비롯 반추동물과 돼지, 가금의 인 요구량을 토의할 예정이며 27일에

는 효율적인 칠면조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아미노산의 수준 사료에 있어서 세레니움의량 등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미국내 사료곡물수요량 5~7% 감소예상

미국 Conti Commodity Service회사 부사장 Lvan Auer씨는 금년도 옥수수와 다른 사료곡물의 국내수요량이 작년도보다 5~7% 가량 줄어들 것이 예상되며 동시에 이것은 2.25~2.5억부셀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전체수요는 약 45억부셀에 이를 것이라고 미국물협회 연차회의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수입국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적 많은 양을 원하는 것 같으면서 금년도 옥수수 재고가 3억5천만부셀이 되고 55억부셀이 새로 생산된다면 45억이 국내수요로 사용되며 약 10억 5천만부셀정도가 수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의 개인 의견으로는 옥수수가격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 전망되고 내년도에 부셀당 3\$에서 4\$ 사이로 오르 내릴 것 같다고 한다.



'73년 일본 가계조사 보고

전국 노동자 한세대당 월 실수입 165,900엔, 월소비

지출 117,000엔에 계란 우유 소비는 1.2%감소

일본의 총리부 통계국은 1973년 평균 가계의 개황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수입

1973년 평균 전국 노동자 한세대당)평균 세대인원 3.9인, 세대주의 연령 40.9세) 일개월의 실수입은 165900엔 이며 (년간199만엔), 전년 대비 19.7%의 증가이다. 한편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분을 제한 실수입의 실질 증가율은 7.1%가 되며 그 전해의 6.4%를 상회한다. 실수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주의 직장으로 부터의 정기수입이 102,600엔으로서 전해에 비하여 명목 16.4% 실질 4.2%의 증가이다. 임시 상여는 36,700엔이고 명목 5.5% 실질 1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처의 수입은 9,400엔으로 32.9% 실질 18.9%라는 높은 신장을 나타냈다.

2. 소비지출

1개월당 117,000엔(년간 140만엔)으로써 전년대비 증가율은 명목 17.8% 실질 5.4%이다. 소비지

출에 기여한 비목별 배분을 살펴보면 식료비 25.2% 주거비 8.2% 광열비 2.9% 피복비 13.9% 잡비 49.9%이며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광열비 피복비는 늘어났으나 기타는 모두 감소하였다. 소비지출중 식료비는 35,200엔으로써 앵겔계수는 30.1%로 전년의 31.0% 보다 낮아졌다. 식료비의 내역을 보면 야채, 육류 가공식품이 명목 20%를 넘는 신장을 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야채가 5.0% 감소하고 육류 가공식품은 각각 1.2% 0.8%의 증가에 불과하다 야채외에 감소된 것은 생선어채 4.3% 감소 우유 계란 1.2%감소 과자 0.2%감소 등이다. 반면 특출하게 증가한 것으로는 과실 8.1% 조미료 6.8% 주류 6.3% 음료 6.2%의 네가지이다.

3. 평균 소비성향

77.5%로써 전년의 78.4% 보다 낮아졌다. 가계의 흑자는 1개월당 33,900엔으로 전년대비 24.1%라는 높은 신장을 보였다 흑자의 내용에 있어 저축의 순수한 증가는 그 3,100엔으로 이것 역시 25.4%의 대폭 증가를 보였다.

73년 식육수급

일본의 식육자급율 78%

72년 보다 5% 떨어져

농무성 축산국에서 발표한 1973년도 식육수급 개황에 의하면 1973년 1월~12월까지 일본 국내에 공급된 식육은 2,231,000톤으로써 1972년에 비하여 9% 증가했다. 이것은 국내 우육 생산량의 대폭적인 감소와 지금까지 높은 신장을 보여 오고있던 계육이 전년대비 109%라는 높은 증가를 보인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식육의 총공급량을 종류별로 전년과 비교하여 보면, 우육은 0.5% 증가한 354,400톤

돈육은 15.5% 증가한 667,300톤 계육은 9.2% 증가한 711,000톤이다.

품목별 비율을 보면

	1972년	1973년
우육	17%	16%
돈육	41%	43%
계육	32%	32%
양육	7%	6%
마육(馬肉)	3%	3%

식육의 총공급량을 일본국내 생산분과 수입분으로 나누어 보면 국내생산이 1,761,000톤으로 전년대비 3%밖에 증가 안했음에 반하여 수입분은 472,000톤으로써 전년대비 33%나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이런 결과는 일본의 식

육 자급율이(국내 총공급량 대 국내 생산량의 대비)78%로써 1972년의 83%보다 5%가 저하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불량은 으로 불패 전년에 비하여 우육의 수입이 2.2배 돈육이 1.8배 증가한 것이 특색이다. 계육 총공급량의 83%를 점하는 부로일러육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생산량은 546,050톤 수출량은 112,080톤(전년대비 182%) 수입량은 24,000톤(전년대비 85%)로써 부로일러육 총공급량에 차지하는 수입량은 4.2%로써 1971년의 6.3%년 1972의 5.5%보다 줄어들고있다.